

금오공과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토론회 직원 단체 질의서

<2021. 6. 직원협의회, 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노사협의회, 산학협력단노사협의회>

대학 전체 대상 정책토론회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통합에 대응하는 우리대학의 전략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의 미충원 사태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 2.7배가량 늘어 16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이 속출하였고,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이며, 이로 인하여 신입생 미충원, 대학 재정부실, 경쟁력 약화, 대학간 통·폐합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벚꽃이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지방대학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일부 국립대는 이미 통합을 하였거나 통합을 검토하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일부 사립대는 폐교 수순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은 주변대학과 비교할 때 준수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당장 올해, 5년 후, 10년 후 신입생 충원 결과와 우리 대학 경쟁력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약화, 대학 통합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며, 향후 우리대학의 10년 후 모습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10년 후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재임기간 중의 로드맵(청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전체 대상 정책토론회

직원협의회 질문에 대한 답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통합에 대응하는 우리대학의 전략은?

저는 기본적으로 **선 발전 후 통합**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하는 취업률 85% 달성을 통한 취업분야 국내 10위권 진입, 산학분야 재정지원 2,888억원 달성을 통한 국내 20위권 산학협력 중점대학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기에 이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대학 **특성화 학과를 통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우리 대학에 지역 산업을 견지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 개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대학에서는 2022년부터 AI 빅데이터 융합학과를 만들어 30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는 이 학과를 스마트 제조 분야 AI 융합공학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22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 구조와 학사에 충격을 주는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새로운 학과는 삼성 시스템반도체공학과처럼 전액 장학금과 기업 인턴십, 그리고 100%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래지향적인 융합학과로의 변화**를 위해 전공, 학과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체 수요조사에 의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산업현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 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대학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

다. 개별 학과나 전공의 자원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채워나가기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학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입니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충원율을 정하고 권역별 유지 충원율(신입생과 재학생)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원 조정을 30%~50%까지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충원 학과는 없애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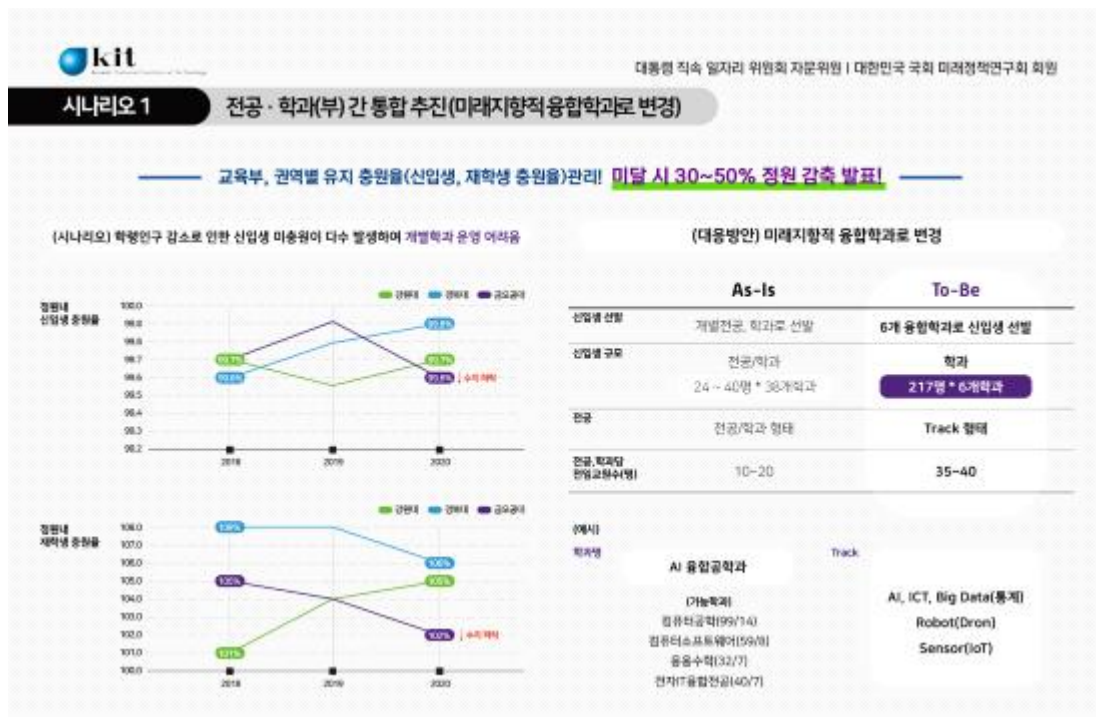
그럼 구체적으로 전공, 학과간 통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입생 선발은 전공, 학과별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전공, 학과가 38개로 신입생 수가 24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학과 당 전임교원의 수는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이를 미래지향적인 6개의 융합학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 학과의 신입생 규모는 217명 수준이고 전임교원의 수는 35명에서 40명이 됩니다. 융합학과에서는 Track으로 세부 전공을 구성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융합공학과를 만들고 여기에 가능한 학과는 컴퓨터공학(신입생 99명, 교수 14명),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신입생 59명, 교수 8명), 응용수학(신입생 32명, 교수 7명), 전자 IT융합전공(신입생 40명, 교수 7명)입니다. AI융합공학과와 신입생 수는 230명이고 교원 수는 36명이 됩니다. Track은 AI, 통계, Big Data, Sensor, 임베디드 SW, Block Chain 등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Robot의 SW 알고리즘을 추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학 간 통합**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본부 중심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 우리 대학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난 다음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을 생각하는 교수분들이 경북대나 안동대와의 통합을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은

우리 대학이 산학 연구 중심대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DGIST와의 통합입니다. DGIST는 1개의 학부에 769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고 7개의 대학원 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학부 학과는 기초과학부이고 여기서는 8개의 Track으로 융합형 전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7개 학과이고 758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7개 학과는 신물질과 학전공, 정보통신융합전공, 로봇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 인지과학전공과 융합공학입니다. 학부를 졸업한 학생의 86.3%가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우리대학은 대학원 진학률이 2020년 6.8%였습니다. 두 대학 통합이 된다면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는 1,086명이 될 것이고 학부 재학생수는 6,343명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학 간의 통합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2

대학간 통합 추진

———— kit ———— DGIST ———— 통합 ———— 산학 연구 중심대학으로 경쟁력 확보 ————
(교육부-과학기술부 간 협의필요)

구분	DGIST		kit	
학생정원(명)	학부	880 명	학부	4,850 명
	대학원	1,030 명	(일반)대학원	408 명
재학생수(명)	학부	769 명	학부	5,574 명
	대학원	758 명	(일반)대학원	328 명
학 과	학과 1개(기초과학부), 8개 트랙		학과 38개	
	대학원 7개		(일반)대학원 31개	
전임교원수(명)	119 명		230 명	
대학원 진학률	86.3 %		6.8 %	

DGIST 학과 구성

대학 : 기초과학부

대학원 :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전공, 로봇공학전공, 에너지 공학전공, 뉴비즈니스전공, AI-인공지능전공, 융합공학

대학원(미리, 2020년 공식기준)